실로암 한인침례교회

Siloam Korean Baptist Church

March 15, 2026, 10:30 a.m.

사순절 네번째 주일 (Year A)

Fourth Sunday in Lent (Year A)

Immanuel Baptist Church

69 Saunders Road, Newport News, VA 23601

담임목사 장선욱 Senior Pastor Sean Chang, 757-867-8676

seanchang78@gmail.com

www.siloamkbc.org

모임 안내 Gatherings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Korean/English) 10:30 am
수요 성경 공부	Wednesday Bible Study (Korean) 8:00 pm via Zoom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예배 순서 WORSHIP ORDER

예배 인도자 Presider 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I 모이기 Gathering

교회 소식 Life of the Church ..... 인도자 Presider

예배 기도 Invocation ..... 인도자 Presider

찬양 Let's Praise! ..... 다같이 All Together

C1162 약한 나로 강하게 What the Lord Has Done in Me

C1001 실로암 Siloam

C1201 우물가의 여인처럼 Like the Woman at the Well

신앙 고백 Affirmation of Fath ..... 다같이 All Together

삶을 뒤돌아보기 Time to Reflect ..... 다같이 All Together

평화의 나눔 Sharing Peace ..... 다같이 All Together

중보 기도 Intercessory Prayers ..... 다같이 All Together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 다같이 All Together

II 말씀 The Word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 다같이 All Together

요한복음 John 9:1-41

설교 Sermon ..... 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예수님이 눈 먼 자를 고치시다 Jesus Heals the Blind

III 화답 Response

찬양 Let's Praise! ..... 다같이 All Together

C1291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Lord

헌금 기도 Offering Prayer ..... 다같이 All Together

IV 파송 Sending

파송 및 축도 Sending Word and Benediction ..... 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교회 소식 THE LIFE OF THE CHURCH

- 지난 주 화요일 2026 년 봄을 여는 작은 음악회를 잘 마쳤습니다.
- 장선욱 목사 부부는 3 월 24 일부터 4 월 8 일까지 한국 방문합니다. 그동안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모이겠습니다.

기도 제목 THE PRAYER LIST

- 사도행전 2 장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 지역 봉사를 감당하는 교회
  -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 선교사들을 위하여
  - 조동천 (캄보디아)
  - 이낙원 (케냐) 우리가 지원하는 아이들입니다. Fabian Kamau Eunice Wanjiku Allysa Wambui Sharlin Akai
-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을 위하여
- 주위에 아픈 분과 돌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 자녀들을 위하여
- 여행하는 분들을 위하여
- 권세자들을 위하여

THE FIRST LESSON 사무엘상 1 SAMUEL 16:1-13

1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2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3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4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5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6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8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9 이새가 삼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10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11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2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시편 PSALM 23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THE SECOND LESSON 에베소서 EPHESIANS 5:8-14

8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 서신서 성경 공부

본문 함께 살펴보기

에베소서 5:8-14 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의 근본적인 정체성 변화를 상기시킵니다. 과거에 그들은 어둠 속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행동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의 삶을 강조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맺어야 할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는' 과정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수동적인 순종을 넘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바울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오히려 그 일들을 책망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책망'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빛을 비추어 어둠의 실체를 드러내고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단락인 14 절은 당시 초기 기독교에서 세례식 때 불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찬송시를 인용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부름은 영적 나태함과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나오라는 강력한 초대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단지 개인의 안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잠든 세상을 깨우는 생명의 빛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담긴 믿음의 주제들

첫 번째 주제는 **'정체성의 전이'**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빛으로 "초대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해야만 하는 일(Duty)'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인가(Being)'에서 흘러나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빛 자체가 되었기에,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맥을 같이 하는 이 세 가지 덕목은 빛의 자녀가 세상에 드러내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착함'은 타인을 향한 자비이며,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이며, '진실함'은 위선 없는 정직함입니다. 이 열매들은 어둠의 특징인 이기심, 불의, 거짓과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세 번째 주제는 **'폭로와 변혁의 빛'**입니다. 빛의 특징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부끄러운 일들을 단순히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그 악함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것이 빛으로 변하도록 이끄는 촉매제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이 빛에 의해 드러날 때, 그것들 역시 빛이 될 수 있다는 바울의 역설적인 통찰은 복음의 변혁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돌아보기

우리는 종종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회색 지대'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빛과 어둠 사이에는 중간 지대가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나는 오늘날 직장과 가정,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명확한 '빛'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혹시 어둠의 행위에 침묵하거나 동조함으로써 나의 빛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는' 노력은 우리 일상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내 기분과 내 유익을 기준으로 선택을 내립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는 매 순간 "이 선택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가?"를 묻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영적 민감함이 결여될 때 우리는 '잠자는 자'와 같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웃의 어둠을 대하는 태도를 성찰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은 '빛의 자녀'의 방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빛은 어둠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곳에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나의 비판이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드는 데 그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가 어둠을 벗어나 빛으로 나아오도록 돕는 사랑의 조명인지를 정직하게 질문해 봅시다.

함께 나누기 위한 질문들

1.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선언이 당신의 자존감이나 삶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2.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 중 최근 당신의 삶에서 가장 맺기 힘들었던 열매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주변의 '어둠의 일'을 책망하거나 드러내야 할 때, 정죄가 아닌 '사랑의 빛'으로 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4. 당신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고 느껴질 때는 언제이며, 다시 그리스도의 빛으로 깨어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실천을 위한 실행 계획

Day 1 (분별 - Discernment): 오늘 하루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라고 소리 내어 자문하고 선택하기.

Day 2 (착함 - Goodness):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나 소외된 이웃에게 대가 없는 친절(작은 선물이나 격려의 말) 베풀기.

Day 3 (진실함 - Truth):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했던 작은 거짓말이나 과장을 고백하고, 정직하게 말하기.

Day 4 (의로움 - Righteousness): 우리 사회나 공동체 내의 불의한 일(뒷담화, 차별 등)에 동조하지 않고, 온유하지만 단호하게 진리의 편에 서기.

Day 5 (깨어남 - Awakening): '잠자는 자'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15 분간 침묵하며 그리스도의 빛이 내 내면의 어둠을 비추시도록 내어드리기.

마무리 묵상과 공동의 기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KRV)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GOSPEL 요한복음 JOHN 9:1-41

1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2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4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6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8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걸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10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2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13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14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15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16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17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18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19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20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21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 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22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23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 보소서 하였더라

24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25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